

## 世界 養鷄産業의 動向 (12)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 계사내의 파리구제 방법

계사내에서 파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모든 양계가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고 파리는 항상 불결한 계사 내부와 주위를 더욱 지저분하게 만들고 여러 전염병원체의 매개체로서 골치거리의 생물임에는 틀림없다.

1979 Poultry International에 미국의 Dekalb농장 연구진들에 의하여 계사내의 파리제거를 위한 청결한 환경요소와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파리구제 방법을 발표하였다.

파리의 세대주기는 평균 12일 정도이고 알에서 하루만에 발생된 파리의 유충은 3~26일 동안 구더기로서 있다가 성장조건 여하에 따라서 3~7일 동안 성장하여 성숙한 파리가 되는 것이다. 성숙한 파리는 3일 후에 약 600개의 알을 낳게되므로 한 마리의 파리에서 생성된 알이 성숙한 파리로 되어 또다시 알을 낳수 있는 주기가

12일 이므로 4주기(48일)가 지나게 되면 한마리의 파리에서 약 1억 3,000만 마리의 자손이 생긴다는 수치이다. 이러한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파리의 증식을 억제하고 근본적인 파리 구제책을 발표한 Dekalb농장의 연구결과를 보면 파리의 제거방법은 파리의 유충과 성숙한 파리일 때의 두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다. 파리의 세대주기에서 발생과정과 파리의 습관을 안다는 것이 파리구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아주 큰 도움이되는 것으로서 먼저 주위환경을 깨끗이하야 성숙한 파리로 발생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충기에 부적합한 환경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파리구제 방법인데 파리의 유충과 알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파리나 유충의 생존 온상이 되는 계사내의 계분을 3일에 1회 정도 제거함으로써 큰 효과를 볼수가 있고 이와 결들여서 습기는 유충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분의 탈수가 중요한 구제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건조된 상태의 계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급수시설로서 바닥이나 모이통에 물이 넘치지 않게하여야 하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환풍장치가 잘 되어져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물기가 묻은 계사내의 불결한 물질이나 흩어진 사료, 연란, 파란의 잔여물을 빨리 제거하고 폐사된 닭의 즉각적인 처리 등이 파리지거의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파리를 죽이기 위한 살충제의 살포는 될수있으면 독성이 약한 것으로서 계사내에서 닭은 물론이고 계란에 영향을 주지않을 정도의 것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렇게 완전한 살충제의 사용은 어려운 것이고 성숙한 파리만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둔 살충제의 살포는 근본적인 파리지거 방법이 될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연구되고 있으며 거의 실용화 단계에 들어간 파리지거 방법은 먼저 파리의 호르몬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파리의 호르몬을 일정량 사료에 섞어 닭에게 급여하고 이 호르몬은 계분을 통하여 배출되게 되며 이 계분에서 기생되는 파리의 유충은 더 이상 성장이 억제되므로 파리의 근본적인 구제방법이 이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파리만을 잡아먹는 벌레나 파리유충만을 먹는 기생충을 계분에 배양시키는 방법으로 매우 효율적인 먹이사슬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계사내부의 소독이나 계분내의 항생물질 유출이 이들에 대하여 반작용을 하므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끝난 후에 실용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방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닭고기의 과잉생산 문제가 남부 오스트레

일리아에서 대두되어 호주의 육계산업위원회(Poultry Meat Industry Committe) 에서는 양계산업의 무절제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부단히 노력해 오다가 1977년에는 브로일러생산에 법적제제를 가하는 닭고기 과잉생산방지책을 만들게 되었다. 이곳 남부지방의 일반 양계농가는 대부분이 큰 도계가공시설을 갖춘 회사들로 부터 계약생산을 해오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자체농장을 마련하여 년간 남부오스트레일리아 전체에서 생산되는 육계 1,300만수 중에서 30% 이상을 생산하게 되므로 계약 브로일러사육자들은 그들의 생활기반을 닭기르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기들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여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1974년에 처음으로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의 농립부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양계산업에 이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실무진을 편성하면서 육계산업위원회에서는 브로일러사육농가와 도계처리회사의 양측 모두 이익을 보호하려는 입장에서 이들 양측의 주장을 절충하여 육계산업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수요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브로일러 생산에 서로간에 경쟁위험성이 없는 생산량을 유지할 것을 골자로 하는 닭고기 과잉방지법을 만들었다. 이로써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육계산업은 생산자와 가공처리회사들 간에 공명정대한 계약을 수립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쌍방의 이득을 높일수 있고 육계산업위원회의 중재로 앞으로의 육계산업이 안정된 기반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네델란드**

네델란드의 계란소비는 라디오나 일간신문을 통한 선전의 효과에 의하여 많이

○특집좌담○

**석준호** : 그렇습니다. 우리 배합사료 공업은 일반국민의 식생활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측한 인구, 소득, 소비패턴을 토대로 본다면 첫째 배합사료 수요는 예측한 것보다 클 것이며

둘째, 배합사료 공장은 한마디로 앞으로 5년간은 전환기로서의 시련을 겪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합사료공장은 앞으로 5년간 전환기로서의 시련 겪을것.

**이영래** : 아무튼 우리 계획대로 된다면 사료공업은 70년대 안에 적어도 물량의 사전확보 시설근대화를 이룰 것이며 80년대에는 모든 것이 본 계획도에 올라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전환기를 벗어난 안정된 발전계획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의** : 사료업계의 기업풍토 면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고 그 이윤의 추구가 기업발전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그 이윤의 획득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로 구현될 수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사양가가 있는 자리에서도 땀땀하게 얘기할 수 있는 풍토가 시급히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정** : 장시간 동안의 진지하신 말씀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논의된 모든 문제가 생산자와 일반 소비자가 공히 보호되는 방향에서 시급히 해결되어 사료공업의 건전한 육성이 이룩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이라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 삼송가축약품상사

## 취급종류

- (1)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약
  - 치료제
  - 기타약품 일절
- (2) 축산기구
  - 사료통,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배합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기구 일절
- (3)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세미
  - 노계 { 백색  
          유색

☎ (389) 9658

